

■ 주요 기사

○ 배출권거래제 관련(3건)

환경	"탄소배출권 늘려달라" 27개사, 정부에 SOS
	[기업들 "탄소배출권 늘려달라" SOS] 탄소배출권 품귀, 1년새 가격 3배 폭등...기업 '과징금 폭탄' 맞을 판
	[기업들 "탄소배출권 늘려달라" SOS] "남는 배출권 일부는 팔아야" ...정부, 내년부터 이월 제한 추진

○ 유연근무제 관련(1건)

조선	중소 유연근무제 도입 땀 1인당 年 520만원 지원
----	--

○ 고용보험 개편안 관련(1건)

한겨레	쥐꼬리 실업급여마저 깎겠다니...
-----	------------------------------------

■ 주요 칼럼 · 기고

○ 일자리 정책 관련(2건)

환경	[다산 칼럼] 일자리가 '보텀 라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
	[기고] 상업계고 졸업생,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하자 (기호업 대한상공교육회 이사장)

○ 배출권거래제 관련(1건)

환경	[사설] 논란 많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폐지가 답일 것이다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고용 복지	제목	중소 유연근무제 도입 땀 1인당 年 520만원 지원 A14면
		내용	고용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올해 지급한다고 밝힘. 한 사업장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
중앙	노동	제목	수출은 나아지는데, 일자리·소비 뒷걸음 치는 까닭 E3면
		내용	KDI는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수출회복으로 설비투자도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완만하고 고용부진도 지속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
동아	고용 복지	제목	“사업주 허락없이 육아휴직 가능하게 법개정” A18면
		내용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기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힘
매경	고용 복지	제목	현대차의 SNS 채용설명회…70명 초청, 본사람은 수만명 A17면
		내용	김은아 현대차 인재채용팀장은 “과거 채용설명회는 큰 강당에서 일방적 강의를 하는 식이었고 만나는 지원자가 제한됐다.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온라인 생중계 채용설명회 취지를 설명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고용 복지	제목	[다산 칼럼] 일자리가 '보텀 라인' (이만우 고려대 교수) A38면
		내용	대기업 고용여력 탈진으로 앞친데 강성노조 기득권이 덮쳐 구직 전선의 청년들은 실신 상태다.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이라는 허상을 떨쳐내야. '일자리가 보텀라인'이라는 기치를 분명히 내건 대통령을 뽑아야
	제목	[기고] 상업계고 졸업생,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하자 (기호업 대한상업교육회 이사장) A38면	
	내용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때 행정, 세무, 회계 계열에서 상업계고 졸업생을 배제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요구	
	환경	제목	"탄소배출권 늘려달라" 27개사, 정부에 SOS A1면
		내용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27개 배출권 부족 기업이 기획재정부에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 건의문'을 제출. 업체들은 △배출권 이월 제도 개선 △정부 보유분 1400만t 상반기 공급 △배출권 가격 상·하한가 설정 등을 건의
		제목	[기업들 "탄소배출권 늘려달라" SOS] 탄소배출권 품귀, 1년새 가격 3배 폭등...기업 '과징금 폭탄' 맞을 판 A3면
		내용	지난해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올해 6월 말까지 시장에서 부족분을 사서 채워넣어야. 그러지 않으면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제목	[기업들 "탄소배출권 늘려달라" SOS] "남는 배출권 일부는 팔아야"...정부, 내년부터 이월 제한 추진 A3면
		내용	추가할당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물량 품귀와 가격 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이월 제한' 카드를 꺼냄. 한 탄소배출권 전문업체의 설문 결과 대다수 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팔지 않고 이월하겠다"고 답한 것도 정부의 변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짐
제목	[사설] 논란 많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폐지가 답일 것이다 A38면		
내용	의무감축국이 아니었음에도 2009년 코펜하겐총회에서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202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제시한 게 정부. 해외배출권 구입, 탄소세, 거래제 폐지 등 대안을 더 강구해야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노동	제목	3% 안되는 여성 임원, 30%가 될 때까지! 2면
		내용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세계 여성의 날 맞이에서 터져나온 목소리. 영국서 시작된 ‘30%클럽’ 여성 임원 30%로. 경단녀 단어는 유행해도 실효 대책은 없어
	제목	“일요일엔 쉬자” 노조 만든뒤 해고 몰린 비정규직 12면	
	내용	인천 만도헬라 하청업체 2곳 350명, 12시간 맞교대로 주 84시간 노동. 사쪽 “고용관계 종료” 일방통보, “비정규직 노조 탄압 수법” 반발, 노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내	
	제목	경기도도 간접고용노동자에 생활임금 준다 13면	
	내용	경기도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 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 노동자(650명)를 비롯해 도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경비 노동자(270명) 등 920명이 추가	
고용 복지	제목	쥐꼬리 실업급여마저 깎겠다니... 17면	
	내용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실업급여를 좀 더 낮추는 쪽으로 정부가 논의. 조선·해운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과 장기 불황 탓에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헐겁게 하겠다는 것	

* 금일 경향신문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끝>